입춘기도



입춘은 처음 찾아오는 절기로서 봄을 알리는 시점인
동시에 역학으로는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나 소
문만복래 등의 글귀를 써서 기둥이나 대문에 붙이고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 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8년 **1**월 **29**일(음 12월 19일) 월요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8년 **2**월 **4**일(음 12월 25일) 일요일
- **기도동참비** : **3**만원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및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삼재기도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8년 **2**월 **4**일(음 12월 25일) 일요일
- **동 참 금** : 1인 **3**만원(기도비,부적 포함) 오곡비 **1**만원
- **준 비 물** : 속옷 1벌(착용한 것도 가능) ※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날삼재입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12

부처님 말씀 지혜수 / **이달의 법문** 바라밀 수행 / **주지스님 법문** 결핍의 계절 / **걸망메고** 동지의 마음 / **감로의글** 생명의 빛, 명상의 노래 / **수행여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설날 합동차례** / **운맞이 일년기도** / **갑진년 정초신중기도** / **입춘기도** / **삼재기도**



지혜수 智慧水



옛날에 앵무새 한 마리가 큰 죽림竹林 가운데 손님이 되어 갔더니
그 죽림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마음으로
대단히 기쁘게 여기고 하루 밤을 자고 돌아왔다.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죽림에는 바람이 크게 불어 대와 대가 서로 마찰되어
갑자기 불이 일어나게 되어 일시에 죽림이 타게 되니 뭇 새짐승들이 놀라 동서로 울며
날아다니는 것을 본 앵무새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날개깃을 물에 추기어 물을 뿌려
불을 끌작정으로 수 없이 계속하고 있던 차에 천신天神이 이것을 보고 꾸짖으며
앵무새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천리 밖에 있는 불을 어찌 날개에 묻은 물로써 끄려고 하느냐?
앵무새가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이 죽림 가운데 손님이 되어 갔던 바 그 죽림에 있는 새와 짐승들이
형제와 같이 대접을 하므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먼 것도 불구하고 불을 끄는데
노력을 다하여 금생에 끄지 못하면 몇 생이 라도 기어코 이 불을 꺼서 구해줄 것을
맹세한다고 하니, 천신이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되어 비를 내리게 하여 그 불을 꺼주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의 불에 타고 있으므로 내가 이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고로
지혜수知慧水로서 이 삼독三毒의 불을 끄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잡보장경 비유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1 | 통권 384호



2 부처님 말씀 지혜수
4 이달의 법문 바라밀 수행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결핍의 계절 정도 스님
12 걸망메고 동지의 마음 진정 스님
14 감로의글 생명의 빛, 명상의 노래 장산 스님
16 수행여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현진 스님
19 법주사 행사일정
20 법주사 소식
21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설날 합동차례
22 운맞이 일년기도
23 갑진년 정초신중기도
24 입춘기도 / 삼재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1월호 통권 384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바라밀 수행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편의상 이쪽 언덕, 즉 차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통이 소멸된 이상세계를 저쪽 언덕이라 합니다. 이를 피안彼岸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도피안到彼岸이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반야심경〉은 본래 이름이 〈반야바라밀다심경〉인데 여기에서
'바라밀다波羅蜜多'란 말이 바로 도피안, 즉 저 언덕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번역하면 '완전한 지혜로 저 언덕을 건너가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강경〉도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번역하면 '금강과 같은 완전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일체중생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나룻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님의 침묵〉으로 유명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 중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굽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부처님은 나룻배, 물은 고해苦海의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룻배는 권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중생을 실어나르는
뗏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나룻배는 참된 자비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희생과 믿음으로
중생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언덕을 건너면 나룻배는 필요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은 뗏목이 고맙다고 해서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뗏목, 즉 나룻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나룻배 없이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해를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나 염세주의와는 다릅니다. 고통의 현실 세계에서 행복의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상세계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현실을 개조해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대승불교는 그 방법으로 육바라밀, 즉 '여섯 가지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시布施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선 행위는 많은 경전에서 가장 큰 공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에 이르면 무주상보시가 강조됩니다. 무주상보시란 선행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에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신는 금전이나 재물과 같은 경제적 시여施與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시는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시는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외시는 공포나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시 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모두 깨끗해야 합니다.
이를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순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나쁘고 받는 사람도 나쁘고, 오고간 물건도 뇌물이므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주고받는 행위가 순수해야 하며,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참다운 보시가 됩니다.

둘째는 지계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계持戒란 선행의 실천을 위해 정해진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율에는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섭율의계란 5계 10계 등과 같이 방비지악防非止惡을 위한 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악계止惡戒라고도 합니다. 한편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는
10선계가 있습니다. 살생 대신 방생을 하며 도둑질 대신 보시를 하는 등 열 가지 선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선법계 또는 행선계行善戒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행위를 중생의 이로움을 위해 행하는 사섭법四攝法 즉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와 같은 행위는 섭중생계 또는 이타계利他戒라고 합니다.
셋째는 인욕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욕忍辱이란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나를 해롭게 해도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내핍, 정신적인 욕망 제어와 같은 것이 곧 인욕입니다.
인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인伏忍이니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화나는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순인柔順忍으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유순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생인無生忍으로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성낼 일도,
참을 일도 없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적멸인寂滅忍으로 생사고해를 뛰어넘어 본래부터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욕에 관한 유명한 얘기로는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이 있습니다.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욕하거나 꾸짖어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인욕은 이렇게 자기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스러운 기분으로
상대에 애정을 가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남과 융화하기 위해서는 인욕의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넷째는 정진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진精進이란 순일하고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항상 부지런하여 물러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정진은
상구보리上求菩提고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것입니다. 즉, 위로는 자기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하로 나누어 말하면 선후 관계로 아는 분도 있는데 내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안으로 보리를 구하고 밖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진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입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며, 생각은 늘 진리의 세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진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물러서지 않으며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선정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정이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명상이라든가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평정을 얻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침착하지 못하고 침착을 잃으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삿된 생각, 허영심, 분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선정은 걸어 다니거나 멈춰 있을 때, 앉거나 누워 있을 때, 또는 말하거나 침묵할 때,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을 때 상관없이 언제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모두 고요한 바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반야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야란 모든 사물의 이치를 환히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하고 삿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량분별을 통해 얻는 통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선정에 의해 얻어지는
'직관지直觀智'이므로 지혜라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반야般若'라고 합니다.
반야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듣고 배우고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반야바라밀은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바라밀을 실천하는 바탕입니다.
즉 지혜가 없으면 보시도 못 하고 지계도 하지 않으며 인욕도 하지 않게 됩니다.
바른 생각과 지혜가 있어야 바라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고불고조古佛古祖들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 것은 오직 이 같은 바라밀을 닦되
거짓 없이 진실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옛 부처가 걸어간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 육바리밀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같은 바라밀을
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조사들은 착어着語를 하면서 연꽃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세간여허공處世間如虛空
여련화불착수如蓮花不着水
심청정초어피心淸淨超於彼
계수예무상존稽首禮無上尊

세간에 처하되 허공과 같으며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마음이 깨끗해 저 언덕을 건너는
위없는 스승에게 머리 숙이옵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집착할 것도 많고 물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자는 세상에 살되 허공에 머물 듯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움 속에 살되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살면 마침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게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누가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하나 악해져야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모두 저 언덕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계절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비워있는 결핍을 밖에 있는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마음에 허전함이라는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허전하다.
공허하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핍되어
무엇으로든 채워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무엇이든 갈망하고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채워나갈수록 공허함은 커져만 갑니다.
비어있는 결핍을 밖에 있는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이제는 채우기보다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동지의 마음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천지는 음양陰陽으로 이루어져 있다.

홀수와 짝수, 암컷과 수컷 해와 달, 1년 12달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지부터 하지는 양陽, 하지부터 동지는 음陰이다.

동지와 하지는 음양이 교차하는 날이다.

24절기 중에 양陽 12절기 음陰이 12절기 합하면 24절기가 된다. 24절기 중, 해가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冬至이다.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지만, 동지부터 낮이 길어져 동지를 일양시생지처一陽始生之處라고 한다. 해가 점점 길어지는 시작으로 양이 비롯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지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피흉취길避凶取吉 하는 것이다.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취한다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활력과 광명의 징조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동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팥죽이다. 팥죽은 악령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팥의 붉은 색이 악귀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여서 동짓날에는 부처님께 팥죽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린다.

동짓날에 팥으로 악귀를 물리친다고 하였는데 과연 악귀란 누구인가? 의문이 든다.

악귀 또는 악마, 잡귀. 마구니로 우리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그 존재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만약 색色이 있다면 그것이 악마요 방해물이다. 색이란 불교에서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 육체, 물리적인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오온五蘊이 그것의 본질이다. 이 말은 악귀나 마구니는 다름 아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신 마갈타국의 네탄자르강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지친 몸으로 나무 기둥에 기대어 깊은 삼매에 들어가셔서 마구니(마라)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달음을 이루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마구니(마왕)은 부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한다.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재물과 권력, 끝으로 수행에 대한 확신 등 이러한 부분은 중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된다. 그것을 잘 아는 마구니는 약점으로 삼아서 부처님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의 전제는 내 안에 잠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만, 아견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집착이다. 신체에 대한 집착, 돈과 권력 등 세간의 이익과 명예 존경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악마 마구니로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경지를 깨달은 분으로서 유혹을 뿌리치고 성도를 이루셨다. 우리 중생들은 이러한 유혹(마구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 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다. 불교의 수행은 연기緣起라는 진리에서 나온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환하지만 끄면 캄캄하다. 불이 꺼져도 환하게 밝은 빛이 들 때 보았던 기억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불안해한다.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돌아서 이와같다.



내 마음을 영원히 환하게 비추는 것은 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자만과 아견으로 부터 나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내 마음의 등불은 켜지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어두워지면 불을 켜고 어두워지면 다시금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념正念이다. 계속해서 수행하고 기도로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 허무감을 버리고 무상삼매(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 마구니, 악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바른길이다.

물질적인 형상도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 내 밖에 따로 다른 세상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올해에도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먹고 내일을 향해 기지개를 활짝 켜야 한다.

생명의 빛, 명상의 노래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인생이 잠깐인데
눈앞의 죽음도 모르면서
부질없이 다투거나 슬퍼하며 노하지 말라
그리고, 분수없이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말라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 속에는 빛나는 태양도 있고
달님과 별님이 있어 생生을 축복하는구나!

하늘에는
회오리바람이 탐욕스런 인간들 질책하더니
싱그러운 산들바람 괴롭고 외로운 자 위로하는구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흰 구름이 희망의 꿈, 꽃피우고
장대비 쏟아놓는 먹장구름도 있구나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물속에는 물고기와 갈대와 해초가 있다.

물속에는
이태백이 놀던 달의 궁전도 있고
수많은 시詩와 음악音樂이 있다.

영웅호걸의 우레 같은 한숨 소리와
아름다운 연인들의 귓속말 연가戀歌도
물속에는 어우러져 있다

그대 속에는
탐욕으로 찌든 그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욕심내고 답답해하고
성내는 어리석음 이외에도
모든 것을 밝게 살펴 아는
한량없는 지혜와 행복도 함께 있다

잠깐만 돌아보면, 그대 속에는
부처님 같은 무진장無盡藏 지혜의
공덕장功德藏이 있다

허공 같은 재물을 다 쓸 수 있는 복도 함께 있다
한량없는 수명과
끝없는 진리의 광명이 있어
일체를 변조遍照하는 강렬한 힘이 있다.

그대 속에는
그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의 처자 권속과
국가 사회와 지구촌과 우주가
함께 맞물려 어우러져 돌아간다.

그대가 미워하거나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여 사랑할 때
일체가 끈끈하게 맞물려
큰 고통과 함께 불행을 맛볼 것이다

원수나 악마에게도 불성佛性* 이 있음을 상기하고
일체의 모든 증애심憎愛心을 여의고
새벽 맑은 시간에 명상하라
우주적 기氣를 타고서
무한無限의 가능성에 접接하라

마음이라든지 마음이 아니라든지
두 가지 분별심을 가만히 내려놓고
단지, 심연深淵의 호흡을 은밀隱密히 관찰하여라

쇄도殺到하는 우주적 기를 흠씬 적실 때
부처님과 여러 성인聖人들의 가르침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불성佛性: 부처님과 같은 대지혜와 대자비의 성품.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여기를 방문하는 이들이 자주 하는 말.
“스님, 정원이 참 아기자기해요.”
그때마다 나는 농담 삼아 이렇게 대답.
“아기도 없고 자기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의 구조와 식물들이 간결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기자기하다고 표현해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섬세하고 정확해서 니승尼僧의 손길로 착각하기도 한다.
여성이라고 해서 다 촘촘한 성격은 아닐 것이다. 남성보다 더 투박한 솜씨를 지닌 여성도 많으니
그런 편견은 이제 진부하다. 여러 해 꽃과 나무를 돌보면서 어떤 정원이 완벽한 설계일까? 라고
자문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스며 있다면
그곳이 최고의 정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종과 다양한 화초들이 있다 하여 반드시
뛰어난 정원은 아니다. 또한 면적이 넓고 크다고 해서 아름다운 정원이라 정의할 수 없다.
면적의 넓이와 품종의 다소와는 차이가 없다.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으면 그게 명품 정원이다.
다시 말해 주인의 평소 생각이나 가치관이 정원 곳곳에 녹아 있으면 된다는 뜻.
자기식의 정원이 되어야지 기준 없이 모방하다 보면 너절하게만 될 뿐 자신이 추구하는 주제가
선명해지지 않게 된다. 저 집 정원엔 적격이지만 우리 정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목이 있듯
자신의 이론이 강조되어야 좋은 정원이라 할 수 있겠다.
정원이 작아도 상관없고 수종이 부족해도 문제없다. 나는, 정리 정돈이 ‘최고의 조경’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정원, 이것이 내가 전파하는 정원 논리다. 다양한 꽃이
피었더라도 그 주변이 너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이미 실격. 내외명철內外明徹이란 말처럼
안과 밖이 두루 투명하다면 더 완벽하다. 그러므로 잘 정리된 정원에서 피는 꽃이
더 고절하기 마련이다. 요즘은 간밤의 바람이 잔디마당을 어지럽히고 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정리하는데 온 시간을 기울인다. 잔디마당은 잘 관리하면 그 자체가 조경이며 풍경이
되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흙 마당보다도 못한 꼴이
된다. 즉, 잔디관리가 조경의 시작이라 여겨야 한다.
이러하기에 여름에는 풀을 잡아야 하고
오늘 같은 가을엔 낙엽을 주워내야 그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이든 잔디의 본래 얼굴을
방해하면 안 된다. 언제 어느 때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 티끌 없는 잔디마당을 보여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잘 손질된 된 잔디의
표정은 참 평화롭다.
원림園林의 기본은 지나치지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배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은 어디서나
응용되는 철학이다. 백제 미학의 기본은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아니던가.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라는 뜻인데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더 어렵다.
즉, 너무 궁색해 보일 정도로 아끼지 말며,
그렇다고 너무 호사스럽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정원을 엄청난 자금을 들여 정원을 조성하여
입을 벌리게 하지만 잔잔한 감동은 없다. 이것은
화이불치의 기준을 넘은 것이다. 기호가 지나치면
사치가 된다. 여성들의 화장술도
‘터치를 한 듯 안 한 듯’하는 게 실력이란다.

너무 지나치면 농염이 되고 너무 약하면 세련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적정선을 맞추는 게
조화이며 비율인데 어느 분야에서건 쉽지는 않다.
밥과 술도 적당히 먹었을 때가 기분 좋고,
잠도 적당히 취했을 때가 몸도 가볍다. 무엇이든
그 선을 넘으면 조율이 깨지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옛사람들도 '적당히 해라'고 했다.
정원의 기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간을 너무 채워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다 비워 놓아도 허전하다.
다시 말해 여백의 미를 잘 계산하는 게 조화의 관건이
라는 것이다. 어떤 정원은 꽃과 나무가 과밀하고
정원석이 많아 따분하고 어떤 곳은 너무 없어서 빈약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원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식이다. 오히려 과감히 비워내면 그것이
'텅 빈 충만'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인공미와
자연미의 조화랄까. 이게 솜씨이며 기술이다.
나는 매번 비워내는 일을 하고 있다. 올가을엔
과밀하게 심어 놓은 은행나무를 베어냈다. 그만큼의
여백이 생겼다. 그건 허전한 것이 아니라
시원해진 것. 무엇을 강조하려면 복잡한 배경을
걷어주어야 가능하다.
이 시대의 거장 안도 다다오의 작품 중에
종교건축물도 꽤 많다. 대표적인 것이
오사카에 있는 '빛의 교회'와 아와지시마 언덕에
세워진 '물의 절'이다. 이 사람의 작품 공간에는
빛, 물, 노출콘크리트가 지형과 조화를 이루어
절묘한 예술미로 탄생하고 있다. 교회는 빛으로
십자가를 표현하여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며,
절은 물이 있는 연못 아래층에 법당을 만들어
신앙의 본질로 안내하고 있다. 결국 사랑과 자비라는
종교의 주제를 빛과 물로 압축해 놓은 것이며,
그런 소재를 통해 평화와 고요를 전달하는 셈이다.
복잡하고 현란하다고 해서 교리의 영역이 확장되거나
위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자의 명패는
수식어가 화려하지 않다. 가타부타할 것 없이
그 본질을 '한 큐'에 말해야 안목이 열린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선'의 정신이다.
안도 다다오는 이러한 선의 정신을 공간으로
잘 설명해 놓은 건축가. 건축뿐 아니라 정원에도
선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돌을 놓고 싶은 욕심이 많아 그 선을 넘으면 식상하고
혼란하다. 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기묘한 반석을 하나 놓았을 때와 여러 개 놓았을 때의
차이다. 마당에 반석 하나만 있을 때는 작품이지만
여러 개 있으면 돌집이 된다.
그래서 주객이 분명해야 한다. 채우는 일이 힘들면
차라리 비워 놓아라, 그게 이리저리 손대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이 낮다.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라는 명언도 상기해야 한다.

"단순함의 미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술적 우수함을 이해할 수 없다"
- 칼 프리드리히 쉰켈

19세기 독일 건축가의 이 한마디가
공간을 왜 비우고 비워야 하는 가를 대변해 준다.
결국 우수한 예술미는 단순함에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나는 훗날 나의 작은 거처가
생기면 정원엔 정말 돌 하나만 놓고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을 생각이다.



눈꽃과 함께하는 법주사

마음도 함께 상쾌해지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악업을 지은 사람도
지금 다시 악업을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법구경

2024. 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1.20 새해첫날	2 21	3 22	4 23	5 24 관음재일	6 소한 25 광명진언기도
7 26	8 27 다도반법회	9 28 합창단법회	10 29 월남대종사다례 천용큰스님다례	11 12,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12 2	13 3 신중기도회향
14 4	15 5	16 6	17 7	18 8 약사재일 성도재일	19 9	20 대한 10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1 11	22 12 다도반법회	23 13	24 14	25 15 보름	26 16 미륵재일	27 17
28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9 19	30 20 보월대선사다례	31 21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12월 7일 동안거 포살법회



12월 13일 초하루법회



12월 21일 동지새알울력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4년 **1**월 **6**일(음 11월 25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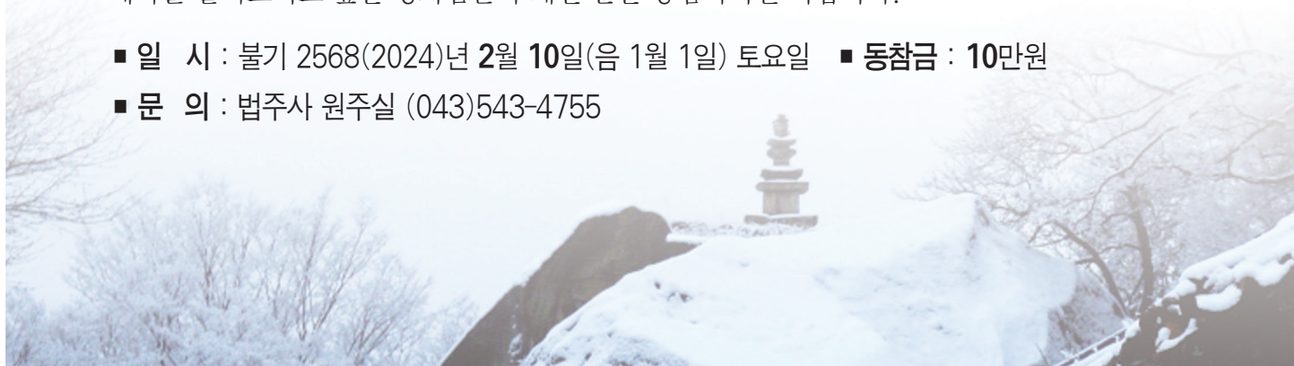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4년 **1**월 **20**일(음 12월 10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 **장　소** 법주사 대웅보전

설날 합동차례

그동안 보살펴주신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연 되는 유주무주 일체영가 및
조상님 제례를 준비하여 차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댁에서 차례를 못 지내시는 가정이나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영가님들이 계신 분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68(2024)년 **2**월 **10**일(음 1월 1일) 토요일　- **동참금** : **10**만원
- **문　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운맞이 일년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웅보전에서 새해 운맞이 일년기도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 **입　　재** : 불기 2568(2024)년 **1**월　　**1**일(음 11월 20일) 월요일
- **회　　향** : 불기 2568(2024)년 **12**월 **31**일(음 12월　1일) 화요일
- **동 참 금**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갑진년 정초신중기도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여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법주사에서는 갑진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정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그날 아침에 세우듯이,
한 해의 계획을 정월에 불공을 통해 설계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을 대박으로 받을 수 있는 공식과 비법은 간단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으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정초기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8년 **2**월 **12**일(음 정월　초삼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8년 **2**월 **18**일(음 정월 초아흐레)
- **기도동참비** : 가구당 **3**만원
- **동 참 계 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 543-4755

